

口腔保健學界의 當面課題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金 鍾 培



過去 우리나라에서 豫防齒科學은 단순히 基礎齒科學의 한 分野로 認定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口腔保健學은 研究對象에 따라 個人과 家庭을 상대로 口腔病이 發生되지 않도록 豫防하여 健康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豫防齒科學(Preventive Dentistry)과 口腔保健에 장애가 되는 社會的 要因을 추구하고 제거하는 데에 主眼點을 두어 集團을 대상으로 口腔病을 管理하는 公衆口腔保健學(Public Health Dentistry)으로 구분되는, 治療齒科學과 相對的이면서도 서로 調和를 이루며 協調해 나아가야 할 應用齒科學으로 發展되었다. 口腔保健學(Dental Health Science)의 이러한 發展의 傾向은 비단 우리나라에 限定된 것이 아니고 全 世界的인 趨勢이며, 오히려 韓國에서 뒤지고 있는 現況이다. 따라서, 이 歷史的인 時點에서 應用齒科學으로서의 韓國口腔保健學 分野에서 해야 할 課題는 國家社會가 要求하는 學問的 體制를 確立하여 國民口腔健康을 效率的으로 向上시키는 原理와 方法을 제시하고 실천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苦痛의 原因이 되는 口腔病을 발생되기 以前에 豫防하도록 하는 것은 倫理的 要請이기도 하려니와, 豫防齒科事業은 팀웍이 가능한 事業過程이고, 治療費用에 比하여 豫防에는 적은 費用이 소요된다는 點에서, 豫防齒科學의 原理와 方法을 國民들의 一常生活過程에 生活化시키는 것은 國民口腔健康을 向上시키는 捷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豫防齒科施術은 가장 基礎的이고 平凡한 齒科施術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豫防齒科學教育이 臨床化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우선 各 齒科大學 附屬病院에는 豫防齒科가 設置되어야 한다. 豫防齒科施術이 가장 效果的인 經驗的 口腔保健教育法이라는 점에서, 소박한 齒科醫療人의 立場에서도 豫防齒科學教育은 臨床化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齒科醫療制度는 전통적 自由放任齒科醫療制度로서, 齒科醫療의 社會性和 齒科醫療行爲者의 慾求가 調和되지 않는 與件에서, 이제 급속히 變遷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처하여 있다. 健康의 概念이 人間生活의 基本要素로 파악됨에 따라, 우리 政府도 醫療 및 齒科醫療의 均霑化政策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國家經濟가 急成長 함으로써 의료 및 치과의료의 均霑化政策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韓國齒科醫療制度는 變換期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확립될 齒科醫療制度는 口腔保健에 장애가 되는 社會的 要因이 아닌 社會制度이어야 하고, 치과의료의 社會性和 齒科醫療人의 慾求가 調和되기도 하는 制度이어야 하며, 우리나라 地域社會實情에도 적합한 制度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齒科醫療制度란 과연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節次過程을 通하여 確立시킬 수 있는지는 연구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公衆口腔保健學界에서는 많은 연구과제에 우선하여, 齒科醫療傳達制度에 關한 廣範圍하면서도 깊은 研究를 組織的으로 推進해 가야할 것이다. 大韓口腔保健學會가 齒科醫療傳達制度研究를 今年 主研究課題로 채택은 하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 進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大韓口腔保健學會 관계자들은 보다 責任意識을 強化하여,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組織的인 齒科醫療傳達制度에 關한 研究姿勢를 가다듬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齒科衛生士養成機關이 대폭 증설된 今年에는 變遷하는 現在의 韓國地域社會와 未來의 韓國地域社會가 要求하는 齒科衛生士를 養成할 수 있는 齒科衛生士教育을 기필코 開發해 내야 한다. 그러므로 大韓口腔保健學會에서는 全國의 規模의 齒科衛生士教育開發委員會를 構成하여 衆智를 모아 齒科衛生士教育을 開發해 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 공급되는 齒科醫療의 質은 그 나라 齒學의 特性和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學問의 水準과 齒科醫療의 質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齒學發展이 구체적으로 國民口腔保健 增進에 寄與하지 않는 限 別로 意味가 없다.